

서산공항 사업 재기획 추진

- 5월 15일 국토부-충청남도 협력 회의...재기획 용역 등 추진방안 논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서산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기획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하여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약 5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,
 - 지난 5월 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*된 바 있다.
 - * B/C(경제성) 0.81, AHP(종합평가) 0.456 / 사업비 532억원(여객터미널, 계류장 신설 등)
- 이에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 공항정책관 주재로 국토부 - 충청남도 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서산공항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재기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.
 -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.
 - 특히,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각 공항시설의 필요성, 규모 등을 살펴 사업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“국토부의 서산공항 사업 추진의지는 변함없으나, 기존의 사업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	책임자	과 장	서정관 (044-201-4137)
	공항건설팀	담당자	사무관	조중범 (044-201-4144)
			주무관	김국남 (044-201-4139)